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우 사람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총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7월 12일 금요일집회

6. 언약에 대한 선지자적인 이해

이스라엘의 멸망 : 여호와께서 심판의 주가 되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니엘 주(主)가 되시니 하라곤 고 외쳤다. 이것이 무슨 믿인가? 이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를 기억하고, 다스리 하라곤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하나니엘을 보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노예였던 자신들을 태카시고 인도하러 오니! 언어학을 배운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따르곤 하라곤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었다. 언어학을 부패에 대한 폭력적인 지식과 영성 지식을 따르곤 인하여 하나니엘은 상관없이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니엘이 주(主)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전적으로 백성화 하였기. 이제 그들에게는 삼라만간이 다 있을 뿐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되었다. 그런데 이사야엘로서는 선지자들의 신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히셨고 대제사장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이었던데(창 20:33, 1막 12, 사 6:11-12, 령 1:3 ~ 4), 더군다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심판의 강도는 엄청하고 두려워서 거의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심판이며(미 1:3-4; 3:12, 3막 1:17, 령 4:23 ~ 26; 8:3; 9:30-11:21; 13:12-14; 1막 4:25; 30:13-13), 모든 죄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심판이었다(사 28:7-18; 28:17-18; 29:9-11 령 6:22; 16:4 1막 8:8-9).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주위 되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세우고 도적질한 하나님의 심판을 신랄하게 지적한 까닭이다. 아무도 피하라는 소름을 일으키는 장관이도 하대암 9:1-4, 연내나 마한가져오지만, 의지로는 세상에 서는 장 큰 권세를 가질 때 가장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었다.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는 기운이 되고, 카톨릭의 권력 역시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져서 역사적 현실이 증거이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았던 까닭에, 그 특권을 오히려 반용하지 못한 탓에 대한 책임을 지물해야 하겠다(창 8:22,14).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되지 않으시기로 하겠다(창 18:9, 56:15).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붙들지 않으기로 하겠다(창 7:29, 127:8). 이제 이스라엘을 수치를 당

해야 하며(사 17:6, 암 3:12).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암 4:2~3).

하지만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랑가득 배뜨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싶어하셨지만(사 1:18-20), 자질을 찾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막 5:4, 6:14), 자신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들에게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렘 3:11-13; 26:3, 13). 여호와께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원통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사 58:2-13). 그분은 결코 악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렘 38:23; 33:1). 그러하다면, 왜 이스라엘이 똑같은 심판을 당해야 하는 말인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에 대해 이기적으로 마음을 닫은 자들이었다(사 6:10). 영혼을 단련시키고 정화시키는 데 노력이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렸으므로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된 자들이었다(렘 57:9, 20). 심지어 모압과 길앗과 같은 중보자가 있었더라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거부하고 자괴하였더라(렘 7:16; 11:4; 15:1).

하나님의 회개와 요청과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리엘엘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은총의 회개가 주어졌고 용서의 길은 마련되었지만, 몰아서지 않고 오히려 강박하게 변해버린 이리엘에게 남은 것은 형용하기 어려운 심판뿐이다. 이제 하느님을 그분의 제사를 지낼 곳(8:12) 14:11~12, 인자와 긍휼을 해하실 것이다(16:5). 또한 열여 열대 만지(17:5). (8:13). 하나님의 존엄에서 누웠던 모든 것이 허구로 돌아갈 때 것이다(22:14).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냉정함과 같은 심판자가 아니다. 그분은 긍휼을 용서하는 호혜의 같은 너그러운 남편이요, 탈자를 기쁨으로 맞아들이시는 아버지와 같은 자비와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고 오시는 공의로운 신 재판장이 되시다. 성령이 변하여 있었으니, 하나님 그분의 성품도 변하여 없으시다. 이리엘의 타락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역시, 동일하게 들리시고 있다. 그분은 결코 기쁨이 없는 자들이 자질없이 할 불같은 심판도 함께 다스리고 있다.

지 · 난 · 수 · 요 · 예 · 배 · 메 · 시 · 지

구원 얻는 것은? (롬 10:8-11)

로사를 기록한 바울 때 해님과 물결에 대한 열정으로 2만여 교회를 핍박하였는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 스스로 복음에 대한 진지 여정였다. 114 8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의 민족주의자들에 향한 12월과 10월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소라델이 구원 얻기를 지녔다. 2개월, 안타깝게도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자기 모습이었다. 그는 이소라델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에 패하였는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복음의 의의)보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신앙의 교회를 혼란히 깨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이소라델에게 매우 고스나그 말하기를 필요치 않다고 알고 있다. 그는 스스로 우대원들이 추구하는 율법의 마음이 되신 복음(사도행) 그러므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는 선한것들~6~7, 오히려 구원된 믿음으로 믿고 일로써 그리스도에 자기의와 말하고 있다 K9-10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신자가 할 말은 믿음의 말씀, 믿음에서 나오게 하고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게 할 단순한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과 한대 하라고, 그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간의 거대한 차이이다. 그것은 믿음과 관계없는 세상의 것과 차별하기 때문이다. 학자나 신학자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 문화와 정치, 경제와 종교, 이성과 예의 등, 믿음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육체에 관한 것들만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락하게 또 세상의 사치함에 매여나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신성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 그로써 그들의 진정한 신은 마음과 신심이 말씀에 개입하지 않고서 한층더, 맑은 공기와 같이, 밭에 등이요 그가 걷는 길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이다(사 11:9-10).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아버지께 독생자의 영이요 은혜와 진리를 포함한 말씀이기 때문이다(요 1:14). 그 말씀은 생명의 복 그리고 신의 영광을 결여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이다(골 2:13-14).

내적 믿음의 필수적인 조건은?

구원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이다. 그리고 내적 믿음의 필수적인 조건은 믿음의 객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80, 연이 아니라 수백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10:32~33). 그리고 바울은 본래부터 믿음을 소중히 생각한 사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대담한 12:3, 그리고 사신 안제이사의 일종의 찬양에서 본래의 주님을 경배할 것을 잊고 12:8, 하나님과 관계를 경배할지라도 42:33,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고 주시고 성령으로 사들임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15:3~4,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신 속천자를 되심을 모든 이스라엘이 내적인 믿음의 증거로 사신에 구원에 이르게 하길 기도하고 있다.

마음과 입으로 시인(병행), 의와 구원 역시 병행

마음은 바로바로 사인하듯이 병행하는 것처럼 의와 구경 역시 병행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은 조 만이라도 의로 그리고 의로 사하거니와 구경에 이르고는 구경이 10년쯤 이러한 구경의 원칙에 대한 모습의 변화를 통해 잘 드러났다. 그는 여수를 그리스도인들 앞에 세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님은 그의 믿음의 고과 위에 구경을 바라보셨다고 회고해하셨다(16:18~).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고전 15:7), 그리스도에게서 구경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돌기 되심에 대한 믿음(사 28:16), 구경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부가하셨듯이 말고 사교하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왜하면 믿음은 말씀으로 구경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16:~7).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었다(21). 구경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 구경에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더 가까이 갔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의 문을 드문고 개었다. 그러므로 구경의 마음의 세도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구경의 말씀에 가까이갔기 때문이다(32).

♥ 식당 보수 공사 관계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식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7/28, 8/4, 8/11 주일에 국수 제공을 못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회 주변의 크고 작은 공사들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할 날을 바라보며 모두가 인내하면서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ll to Me

(Jeremiah 33:1~3)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the second time while he was still confined in the court of the guard, saying
"Thus says the Lord who made the earth, the Lord who formed it to establish
the Lord is His name,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Jeremiah was a very unpopular prophet. The king, religious officials, and general congregation of Judah hated him because of his message of doom against their nation. God's people even imprisoned him. If you place yourself in his situation, all your life working for God and His people hating you, putting you in jail, you would be a little discouraged. But Mighty God visited Jeremiah twice while he was confined in jail. He told him not to be discouraged, but to call to Him. This is a wonderful summons that produces wonderful outcomes to all who reply! God doesn't leave His people in their time of confinement, rather, He doubles His visits when they are in double trouble. As such, today's Bible verses belong to every discouraged servant of God. Let us look at them for the encouragement we so desperately need in our times of trial and tribulation.

The first prison word to Jeremiah concerned his faith by obedience. He was to redeem the field at Anathoth, which he did. This land was about to be overtaken by Babylon, so in worldly eyes it wasn't a very good real estate investment. But Jeremiah, faced with what seemed a hopeless situation, obeyed God and bought the field. This second prison word tested Jeremiah's faith by prayer. There's no doubt that he passed the test because later in his life he witnessed great and mighty things, just as the Lord had promised. For those of us who may not be physically imprisoned, but who are spiritually imprisoned, we can place great value in God's words to Jeremiah.

God told Jeremiah "Call to Me". God wants us to pray. He encourages us to continue in prayer. Instead of complaining or relating your woes to friends and family, just pray by faith. Pray, even though you have prayed. Pray concerning your present trouble, like Jeremiah did about the "siege mounds" that were built up over Jerusalem's city walls by the invaders (see Jer. 32:24), on that very detail God answered. Pray, even though you are still in prison after prayer. If deliverance is delayed, be more persistent, let your prayers be relentless. Pray, for the word of God comes to you with this command, "Call to Me". The Holy Spirit will direct you, and help you. We need to pray because of our backwardness, forgetfulness, and tendency to unbelief. God calls us to pray because of His wisdom, love, and concern for our well being.

God encourages us to expect answers to prayer, "I will

answer you". Even though you pray, still in jail, expect an answer. Usually we remember God's promise to hear us, but when we are in trouble, the promise is special, "I will answer you". The Lord will answer us because He promises to. His nature is righteous; He cannot lie or deny Himself. As such, His promises are sure. It is God who prompts and encourages us to pray. It is His Holy Spirit that leads, directs, and guides our hearts toward prayer. It is His word that promises to answer our prayers. So, ask in faith. Look up in hope. What a great encouragement! Whatever our situation, we have victory.

God encourages us to expect great things as answers to prayer, "I will tell you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you do not know". We can anticipate great counsel that is full of wisdom and meaning. We can look forward to mighty works that are mighty effectual. We can expect the unexpected. We can count on divine things happening, like healing, the enjoyment of peace and security, freedom from bondage, cleansing from sin, and forgiveness of sin (vv. 6-8). Sufferers may win unexpected deliverance. Workers may achieve surprising marvels. Seekers may find more than they expected. Believers may increase spiritual insight.

When we serve the Lord, we can expect persecution, and thus, suffering. Our pride may be broken in front of everyone. Our enemies may insult us, get angry with us, and even hurt us. We may become discouraged. Look at the cross. They crucified our Lord. They mocked and beat Him. They tried to tempt Him into proving He was the Son of God by saving Himself from the cross, so that they could believe. What did Jesus do? He prayed for God to forgive them for their ignorance. What a prayer Jesus prayed to His Father! After taking all that Satan had, Jesus said, "It is finished". What an unexpected thing. Jesus' final words brought victory over death, over sin. All that we lost from the Garden of Eden He achieved at the cross from His faithful prayer. We got back the kingdom of God. Now, we can call to our Creator God, and He will answer us, and He will tell us great and mighty things that we didn't even know. Let us continue to pray, expecting answers and divine revelations. Amen. ▮

부르짖으라

(렘 33:1~3)



김성완 목사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난받는 종들에게 찾아오심

예레미야는 별로 인기가 없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왕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가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되더라도 한다면 여러분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동안 두 번이나 방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응답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금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의 고난이 두 배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 배로 자주 방문에 주십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지금 낙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격려를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믿음의 순종

육체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순종하는 그의 믿음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곧 아나돗의 땅을 사도록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곧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될 땅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결코 현명한 부동산 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땅을 샀습니다. 육체의 예레미야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지도자로서의 예레미야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였음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예레미야는 주께서 약속하셨던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그의 생전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꼭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커다란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를 권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을 향한 불평 내지는 저주의 말들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기도했어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고난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마치 침략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지어 놓은 “홍벽”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렘 32:24 참고).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감옥에 있더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만약 구원이 지체되고 있다면 더욱 끊임없이 가져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명령하였으니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과 건망증과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의 안녕에 대한 그분의 관심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권유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비록 여러분이 여전히 감옥에 갇힌 상태로 기도하더라도 응답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라는 약속은 더욱 특별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짓말하거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며 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도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대한 격려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간에 우리는 승리를 얻습니다.

놀라운 응답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지혜와 의미가 충만한 위대한 경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게 작용하는 위대한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할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 평화와 안전의 기쁨,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죄 씻음, 죄 용서와 같은 하늘의 거룩한 일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6-8절).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꾼들은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찾는 자들은 기대 이상의 것을 얻게 될 지도 모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본받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핍박과 고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모든 이들 앞에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에게 분노를 표하며 심지어 우리를 다치게 할 지도 모릅니다. 아마 낙심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를 못 박았습니다. 그분을 조롱하며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하여 증명해 보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면 믿겠고 그분을 유혹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사단이 가한 온갖 것을 다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예상 못했던 일입니까?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죽음과 죄를 압도하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언 동안에서 없었던 모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신실한 기도를 통해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 전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응답과 계시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2002 증현교회 단기선교 나라소개 ④

루마니아

우리가 갈 곳, 찾아야 할 사람들

루마니아는 어떤 나라인가?

루마니아의 면적은 237,500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남한의 2.2배 가량이다. 인구는 23,816,000명으로, 인구밀도는 매우 낮다. 그러나 수도 부쿠레슈티에만 2,231,000명이 거주해 심각한 도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브라쇼프, 시비우, 티미슈아라, 아라드, 플로리에쉬, 클루즈나포카, 야시 등 도시에는 불과 22만명에서 약 38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심한 인플레이 현상으로 영세민들은 도시생활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시 시골로 이주해 가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종교적 상황으로는 루마니아정교회인 율도독스가 79% · 카톨릭 5.9% · 개신교 8% · 이슬람 1% · 유대교 0.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여호와증인 · 물몬교 · 주의 군대 등도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루마니아인들은 율도독스와 카톨릭 외에는 모든 종교단체들을 이단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장로교, 침례교, 장로교, 오순절교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종족분포로는 루마니아인 81%, 헝가리인 7.9%, 독일인 0.6%, 집시족 9%, 기타 1.5% 등이다. 집시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루마니아인들에 의해 심한 압박을 받아오며 지금도 루마니아인과 집시족 사이에는 불신과 멸시로 가득 찬 심한 갈등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층에 있는 집시인들 중에는 의료계, 법조계 등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러 종족이 살고 있으나 공용어는 루마니아어이다.



3. 의료 선교

루마니아에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루마니아를 방문하기 전에.

루마니아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 매우 덥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긴 옷을 준비해야 한다. 섬머타이미 적용되며 7, 8월에는 밤 10시가 넘어야 해가 진다.

전통적인 음식으로는 우리나라의 찜밥과 비슷한 쌀뜨말래와, 식초를 가미한 국물 요리, 밀로 만든 빵, 양고기, 룰케이 같은 코코넛 등이다.

달리를 운전할 때 정해진 환전소 외에는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돈 거래를 할 때는 통역자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엄청난 바가지 값을 쓰는 경우가 많다. 노방전도를 할 때 집시족들의 집단 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한다.

전압은 220V로 한국과 같다. T.V. 외에는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위반을 했을 때는 경찰들이 부당한 과태료를 요구할 수 있다. 수도와 연결된 몇 군데(80Km)를 제외하고 루마니아의 거의 대부분의 도로는 최고시속 60Km이며, 중앙선 침범을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단기선교를 떠나면서

김은경 (집사, 1교구 우크라이나 단기선교단원)

단기선교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벅찬 감동과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일면서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믿을 하나로 순종하며 단기선교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달갑지 않은 반응과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두드림엔 열리리라'라는 말씀을 가슴 속 깊이 되새기고 기도하며 선교준비에 열정을 쏟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15를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오직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살 수 있다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놀랍게 체험하는 이번 단기선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오직 믿음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여!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부서	사역지	날짜
10교구	몽골	7월 15일(월)~25일(목)
16교구	우즈베키스탄	7월 16일(화)~24일(수)
3교구	슬로바키아	7월 16일(화)~26일(금)
대학부	탄자니아A	7월 16일(화)~29일(월)
탁아부	탄자니아B	7월 16일(화)~29일(월)
8교구	우크라이나	7월 19일(금)~31일(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에도 복음이 필요할까?

루마니아인들 중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국가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공산주의 치하에서 가혹한 탄압과 핍박을 받으면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즉, 성령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건물만 있는 교회에서, 명맥만 이어온 기독교가 된 것이다. 성령이 떠나고, 말씀 대신 공산주의 윤리강령이 선포되었던 교회를 과연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주일이 되면 고기와 독한 술을 가지고 들로 산으로 가는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씀을 선포하던 목사들을 투옥하고 핍박하던 종교를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부 힘 있는 자들이 정권전환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출세의 전유물로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저들은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역종류

1. 노방전도

거리나 광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지, 마이크나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하고 있으나, 통기타 혹은 탬버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가끔 율도독스의 부정적인 반응을 접할 수 있으나, 담대하게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 일대일 전도

대학캠퍼스, 기차 안, 혹은 길거리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루마니아어로 된 사영리 혹은 루마니아어 성경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이미 결혼한 성인들은 율도독스에 의해 세례가 되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또한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율도독스 교회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대부, 대모관계(친구조차도 성세 혹은 견진성사를 받는 사람이 세우는 종교상의 남녀 후견인)가 형성되어 더더욱 힘들다. 그러나 이들 또한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도브리 덴(안녕하세요!)

서혜인 (대학부, 체코 단기선교단원)

저희는 이번에 체코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대학부 체코팀입니다. 체코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시나요? 체코는 동유럽에 속한 나라이고 독일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이지요. 체코는 천주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선교를 가는 나라입니다. 교회에서는 총 네 팀이 체코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중 저희 대학부 체코팀이 가장 먼저 떠납니다.

체코는 최근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교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전체 인구의 60%가 무교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 39%가 로마 카톨릭 신자라고 하니, 개신교 신자가 얼마나 드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희 팀은 체코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처음 파송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저희 대원 대부분이 이번에 처음 선교를 나가는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체코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부탁합니다.

나마스떼 (안녕하십니까!)

김대웅 (고등부 교사, 고등부 인도 단기선교단원)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4, 5년 전부터 선교에 비전을 주셨고, 그 은혜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바쁜 학교 공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선교를 향해 과감히 발을 내딛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이번 고등부 인도 단기선교단이 가는 곳은 몰바이와 팔카파 지역이다. 몰바이와 팔카파에서 학교와 병원 전도를 계획하고 있다. 또 몰바이에서 팔카파까지 기차로 이동할 때 현지 승객들과 만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서문 영어와 힌디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를 듣는 심령들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기도 한다.

소중한 사역

이정현 (대학부, 청진1부 인도 단기선교단원)

저에게 있어서 인도에 대한 지식은 고등학교 시절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외선부 인도팀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인도인들의 생김새와 언어, 문화, 모두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매우 볼 때마다 낯설기만 했고, 그 사람이 그 사람같이, 이름조차도 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인도말 한 마디 할 줄 모르는 제가 그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일년이 지나 느낀 사실은, 그들엔 관심과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인도 단기선교를 지원했습니다. 인도 형제들의 두근 두근 가족들과 그들이 태어난 곳을 보고 그들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인도단기선교단이 생기지 않아 청진1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 대부분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밖에 없는 여름휴가를 단기선교 날짜에 맞추는 언니·오빠들을 보며 이번 단기선교는 소중한 사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선교의 나라 인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한 상상에 오르는 여러 길 중 하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런 신앙관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깊이 뿌리박힌 이 사상들은 우리의 힘으로 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는 델리를 중심으로 힌두, 쉬리람, 한스라지 칼리지를 대상으로 캠프사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만나게 될 대학생들은 우리보다 영어도 잘 하고, 철학적 지식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말과 지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입술로 주님만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CMTC 1박 수련회

마지막 CMTC 1박수련회를 선교ող아기대회로 대체합니다.

1박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해 CMTC를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2. 7. 26(금). 금요일 오후 21:40-23:00

장소: 갈릴리움

강사: 정현민 목사

대상: 미수료한 CMTC 수강생 전원(미지마 1박 수련회입니다)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몽골



15교구 단기선교단(7월 22일~8월 1일)

홍스쿨(중간에 6지역을 경유) 지역 선교

1. 우리 입술이 전할 복음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2. 매일 하나님께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3. 몽골의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하소서.

도미니카 공화국



학원전도의 단기선교단(7월 22일~8월 2일)

산 페드로(빈민가)·아래(대학교) 지역 선교

1. 모든 대원들이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2. 하나님께 예비하신 심령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빈민가와 대학에서 만날 영혼들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체코



대학부 단기선교단(7월 22일~8월 2일)

체스카부레오비체·브르노 지역 선교(체코 내부지역)

1. 일대일 사역을 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노방전도 불하).
2. 남부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주님의 심장으로 체코의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인도



고등부 단기선교단(7월 23일~8월 1일)

몰바이·팔카파 지역 선교

1.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교가 되도록.
2. 방문하는 지역마다 사단이 물러가고 복음화되도록.
3. 모든 대원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우즈베키스탄



청진2부 단기선교단(7월 26일~8월 3일)

타슈켄트·나망간 지역 선교

1. 선교 지역에 있어버린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2. 모든 대원들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3. 정담사역, 외곽마을·대학교·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크라이나



1교구 단기선교단(7월 26일~8월 7일)

키예프·테르노폴·우즈고라드 지역 선교

1. 자기를 부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증거해 하소서.
2. 모든 대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차 이동 중에도, 길거리에서도,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3.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인도



청진1부 단기선교단(7월 27일~8월 3일)

델리 지역 대학생 선교

1. 델리 지역의 대학생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2. 대원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하고, 서로 협력하여 교제하도록.
3. 사역기간 동안 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교사역이 되도록.

슬리랑카



대학부 단기선교단(7월 27일~8월 7일)

콜롬바·포투라·아워버래 지역 선교

1. 스리랑카인들이 불교와 이슬람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2. 대원 모두에게 낯선 곳이지만, 담대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3. 스리랑카의 몇 안 되는 개신교 교회들이 복음전도사업에 더욱 앞장 설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8교구 선교단과 루마니아로 단기선교를 떠났던 4교구 선교단이 지난달에 무사히 귀국했다. 단기선교를 통해 선포된 복음이 각 나라와 지역에 뿌리내려 자라도록 더욱 기도해 힘쓰자.

구약에서부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노라”(렘 13:23).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본성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제한된 본질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저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다.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Neither can you do good who are accustomed to doing evil)”(렘 13:23). 하나님께서도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 안에서 태어난 죄인은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죄악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죄를 짓는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선포하신다.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변화가 약속하신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니라”(마 19:26). “그가 자기 백성을 죄 회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인간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에수를 의의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죄와 사상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주저하거나 말씀을 외면한 채(마 13:15)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 그 믿음의 결단 이면에는 이기심이라는 본성이 순종 후의 손을 두들음에 펴며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된 자기 부인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고 누리지 못한 결과다.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변화된 자의 습관에 익숙해져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가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마 13:15).

(영혜원 기자)

다음주일 찬송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가는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경으로 월리엄 트루 슬리과 목사가 1887년에 작사하였다. 인생의 고통과 실망과 낭패와 절망과 죽음의 망배를,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나아오심으로 벗어날 길이 있음을 노래하는 신앙고백적 찬송이다. 무디 선생과 오랫동안 찬송인도자라 전도생활을 하던 스테판스가 ‘예수님, 제가 옵니다(Jesus, I come)’라는 곡명으로 작곡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 1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지부와 기쁨 배워서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곤한 삶이 부패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 2절: 낭패와 실망 끝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종과 찬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 3절: 고난한 길을 떠나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를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열망의 포구 떠나니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유를 조목조목 아뢰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불러야 할 것이다. 결코 슬프지 않게 사죄의 온유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밝고 기쁘게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창원 찬원)

성경 역사 속의 어머니의 신앙



요제벳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불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고 크게 번성하여 온 땅을 가득 메운 만큼 막강하였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식을 낳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늘어가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향해 “히브리 여자들이 조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가 나그네 나그네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출 1:22).

이 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 요제벳과 결혼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시위 아니하였으”(히 11:23). 요제벳은 하나님과 마음을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바를로 무시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히 11:24-27). 그러나 모세의 믿음이 있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오던 요제벳은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도하면서 갈대 산자를 가져다가 여청과 나무 잔을 칠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계단을 쌓은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하나님을 향해 내어 놓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지혜가 있습니다. 요제벳은 아이를 담은 그 산자를 나일강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는지 그 누구에게도 지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은 집에 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의지하고 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인 유아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린 왕의 딸에 의해서 그 아이가 구출된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뛰어서 그녀와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양육할 유도를 데려올 수 있나이다”. 물에서 건져낸 자는 그 아이는 이제 요제벳의 품에 안겨 그 젖을 먹고 기쁨을 받으며 양육하여 온전하게 자라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혼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우리는 요제벳의 신앙을 통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세상이 주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요제벳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락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여기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린 때에 부정적인 공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고난 중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보호하심을 교훈합니다(시 34:4; 17-20). 또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부정적인 공포를 대항하여 싸우고 나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수 1:9).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대담이시요, 우리의 연약함과 괴로움을 철저히 이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대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4-16).

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5교구 장은주 성도(여31세) 교통사고(차량 정면 충돌)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머리로 다쳐서 입원 중입니다. 다친 곳이 아무 탈 없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권요셉 성도(남27세) 6개월 여만에 폐에 다시 이상이 생겨 지난 10일 입원했다가 현재 검사 중입니다. 수술 안 하고 병이 치유되고 체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영요실

9교구 최자임 권장(여37세) 자궁암 수술 후 치료 중 장기 부위까지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믿음으로 평안한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2교구 정복선 집사(여69세) 뇌경색으로 치료 중입니다. 환우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것과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황승기 집사(여50세) 은 몸이 마비되는 ‘근육위축성 측삭병’으로 집에서 두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과 병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지정민 (집사, 유치부 원혜원 엄마)

중학교 때 처음 천구마라 동네 작은 교회에 다니며 성가대를 했었습니다. 그 후 교회를 안 나갈 때도 "교회의 땅에 벗으려고..." 이 찬양이 제 입에서 간간히 흘러 나왔습니다. 그 때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20년 가까이 제가 돌아오기를 기대해 주셨습니다. 96년 이웃길 구역장님의 전도로 중천교회에 처음 등록하면서 그때 중의 찬양이 저 자신의 주님의 음성에 그 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내 모습을 발견한 것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이었는지... 한 순간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넘치는 죄악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찬양으로 나음을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은 나의 심령이 피곤하고 상하여 마음이 불안할 때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찬양 속의 주님은 내 지친 영혼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십니다. 죄악을 벗게 하시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께, 온 가족이 함께 영광 돌리며 하심은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귀한 선물인 두 딸 슬연, 혜연이가 주일마다 찬양대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노래를 배우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찬양해 하시고 세상 이야기를 듣기 전에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인도하심은 또한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지친 출장 속에서도 주일을 성수하는 남편의 입술에서 아이들의 찬양이 흘러 나옴도 내가 이를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온 가족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영원한 주님을 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녀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시 47:6).

그 곳에서만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이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 그래서 죄 지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또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성품이 있다.

죄만 짓는 자들로써 멸망시켜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거기에 12만 명되는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멸망시킬 수 없었다. 한 번 앗수르 민족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앗수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앗수르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마음먹으셨지만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셨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그 이유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회개를 하면 용서해주시기 때문이다.



심규호 (소년부 전리매)

믿음의 학교에서

유언

진리의 새 창 마태복음(Matthew)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신약성경의 처음을 장식하는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생각해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 세밀하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신경을 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에 대해 잘 알아야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내용들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선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은 '레위(Levi)'였습니다. '레위'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지파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과는 상반없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인 세리로서, 반(反)마 유대인 사회에서 전(全)마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격악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는 언제나 거리 속에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마태'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마태'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인 마태복음 9장에서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선, 자신은 예수의 부름에 아무런 미련 없이 그분을 쫓았다고 고백합니다(마 9:9).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집에 모셨으며(마 9:10),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명한 교훈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건장한 자에게는 약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없다"(마 9:12).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바리새인으로부터 들었고(마 9:11),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마 9:13). 그러니까 '마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을 배격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죄가 율법을 두루 위시 죄인들과 그 마음을 나누기를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동물이 의식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기 위해 죄인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헌신적이고 참된 영혼의 의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특징을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마태'가 세리였던 까닭에 돈에 대한 빈번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우선 돈의 단위에 있어서, 마태는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렘돈'과 '데나리온'을 언급하고, 누가는 '렘돈', '데나리온', '드라'를 언급한 반면에, 마태는 드나리의 60배가 되는 고 단위인 '달란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마 18:24, 25:15). 그리고 물고기의 입에서 얻은 돈 한 세개'에 대한 성전세금의 기적에 대해서는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17:24~27). 또한 '마태'만이 자신은 카타나 돈을 땅갈 밭고도 다른 사람을 땅갈게 주지 않는 막한 종의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 18:21-35). 그는 과거에 돈을 거두어들이기 싫었던 사람으로서, 용서라는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품상 자를 방편한 대한 언급입니다(마 20:1-16).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돈에 대한 성서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돈으로 계산되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욱 목사(출판국 지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설교를 합니다(23장, 24장). 고별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23:6). 말씀을 지키되, 담대한 결단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지키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떠난 자가, 쉽게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수 23:12-13). 여호수아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각심을 강하게 일깨운 것은 앞으로의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고전 16:22).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23:11).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다 른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백성을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23:16). 여호수아는 저주 부문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악된 인간의 마음을 너무 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바로 선 종은 자신들의 죄악을 먼저 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율바로 설 수 있으며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할지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르러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게 됩니다(사 2:10).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사 2:3).

가나안 사람들로부터의 도전과 괴로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죄의 심각성이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승리와 능력이 될 것입니다.

(권형일 기자)

